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19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11.80원 (-1.20원)

KOSPI

6,869.83 (-108.11, -1.55%)

KOSDAQ

834.20(-30.45, -3.52%)

국고채 10년 금리

4.382(+0.06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8월 3주] 속제를 미루면 쌓일 뿐 [박준우, 허성우]
해외크레딧	AI 투자 확대, 호주달러 크레딧의 새로운 공급원 [하형민]
해외채권	BOJ의 딜레마 [허성우]

기업분석

명신산업	실적은 반등, 밸류에이션은 지배구조에 할인 [송선재]
테스	양호한 실적과 든든한 수주잔고 [김록호]
인텔리안테크	복미 생산 거점 구축과 저궤도/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체질 전환 [한유건]
이수페타시스	Capa 확대, 평가 인상과 믹스 개선의 콜라보 [김민경]

산업분석 Monthly & Weekly

건설 Weekly	현대건설 4세대 SMR 수주 기대 [김승준]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 삼성SDI, LG, S-Oil, 농심, 로보티즈, 제넥

하나증권

2026년 8월 18일 | Global Macro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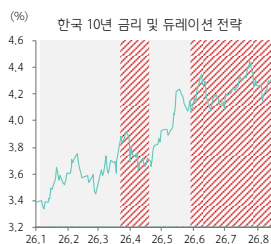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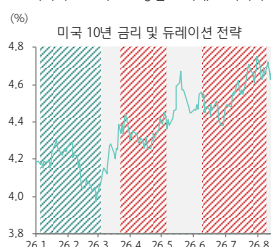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8/10 기준. ●는 직전(6/8) 전망

■적극축소 ▲축소 ■중립 ▲확대 ■적극확대



주간 하나채권

[8월 3주] 숙제를 미루면 쌓일 뿐

- 미국, 7월 CPI로 9월 인상 우려 후퇴. 그러나 인상 시점이 늦춰질 뿐 성장 하방보다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큰 구도는 그대로. 미-이 확전에 따른 유가 반등 가능성도 부담
- 미국, 12월 인상과 연말 10년 4.7% 전망. 한국, 교역조건 추가 개선에 8월 인상 가능성 충분해 듀레이션 '축소' 유지
- 최근 양국의 커브 스티프닝은 인상을 미룰수록 이후 긴축 강도가 커질 위험을 시사

Weekly Viewpoint

지난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고, 미국 국채 2년 금리는 3bp 하락했다. 월초 미국 7월 비농업고용이 크게 부진한 데에 이어 주간 ADP 고용도 월간 환산 5만명 이하의 추세를 가리키면서 고용 모멘텀 둔화가 재차 확인됐다 [도표 15]. 그리고 지난주 7월 CPI가 전월비 +0.1%(근원 +0.2%)로 예상에 부합하며 인상의 시급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년 금리는 4bp 상승해 10-2년 스프레드는 50bp를 넘어서었다. 9월 인상 리스크 완화에도 장기금리가 쉽게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 ADP 고용 부진, CPI 안정, 7월 소매판매 부진(-0.6% MoM)까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성장(고용) 하방보다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7월 CPI가 예상에 부합했으나 Sticky(+0.29%), Median(+0.26%) 등 기저 지표들은 전월비 0.3%에 가까웠다. 또한 관세와 AI 관련 항목들의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히 남아있다 [도표 3]. 7월 소매판매 부진은 6월로 앞당겨진 아마존 Prime Day의 역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2007년이나 2022년처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실질 소비를 위축시킨 국면과는 분명히 다르다 [도표 5]. 주간 Redbook 소매판매 지수도 전년동기비 +8% 이상으로 양호하다 [도표 6]. 현재 미국 성장은 투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 역시 사이클이 꺾였다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란의 협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이다. MAGA 지지층의 77%가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며 손쉽게 물러날 수 없다. 그렇다고 전쟁을 이어가며 막대한 비용과 유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기도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이란은 확전을 계획 중이다. WSJ에 따르면 아랍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과 예멘/이라크 등 민병대 동맹 간의 통신 등을 통해, 이란 내 강경파 지도자들이 확전을 통해 미국의 비용을 키우는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증거를 포착했다. 6월 중순 종전 MOU 이후 이란 강경파는 협정을 당시 합의를 미국이 경제 부담을 덜고 향후 더 큰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시간 벌기 용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강화하고 8월 들어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고 사우디 아람코 정유 시설도 타격하고 있다. 미국-이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간선거

다가올수록 미국이 무리하게 지상군을 투입할 위험도 커진다고 판단한다. 유가 반등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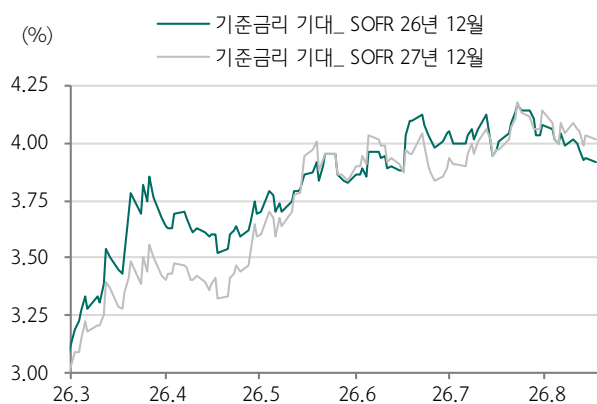
[참고] 장기금리 안정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초장기 선도금리 상승에서 나타나는 기간프리미엄 상승(p. 7 ‘Food for Thought’ 참고)

미국의 기준금리 프라이싱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8월 이전까지 시장은 연내 인상 가능성을 높여가는 반면 내년에는 인상이 끝나고 다시 인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반영했다. 연준의 6월 점도표 중앙값도 올해 0.5회 인상, 내년 0.5회 인하였다. 그런데 케빈 워시 의장이 7월 FOMC에서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최근 지표들도 동결 쪽으로 기울자 **올해 인상 기대는 후퇴하는 반면 내년에는 기준금리 레벨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표 1]. 단기 지표에 의존하여 인상을 미룰수록, 이후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증권은 [‘\[8월 2주\] 고용 쇼크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9월 인상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1) 투자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 (2) 미-이 협상 난항에 따른 유가 반등 리스크로 **장기금리 방향성이 하락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12월 인상 및 연말 10년 금리 4.7%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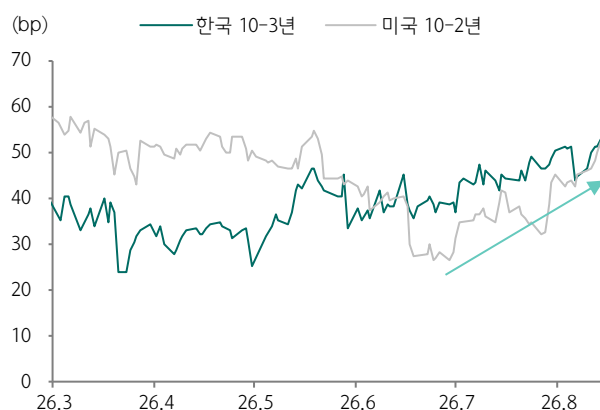
한편 **한국**은 월말에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가 하락한 반면 수출물가는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추가로 개선됐다 [도표 7, 8]. 이는 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성장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통안채 3개월 금리는 2.82%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10bp도 되지 않는다. 8월 인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10-3년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도표 2],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늦을수록 긴축 강도는 커질 위험을 시사한다. **연속 인상 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위험은 물론이고, 동결을 하더라도 장기금리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도표 1. 미국 단기금리(기준금리) 기대
: 8월 들어 2026년 연말보다 2027년 연말이 높아지기 시작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2.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편더멘탈'이 인상을 지지한다는 의미



자료: LSEG, 하나증권

2026년 8월 18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크레딧

AI 투자 확대, 호주달러 크레딧의 새로운 공급원

AI 투자 확대, 호주 데이터센터의 자금 수요로 전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기술기업과 데이터센터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AI 관련 투자가 이익과 잉여현금흐름 개선을 앞서면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기술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데이터센터 기업과 금융시장으로 분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호주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체 기업 투자를 끌어올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RBA는 8월 경제전망에서 최근 기업 투자 증가가 주로 데이터센터 투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향후 관련 투자 전망도 상향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마존은 2025~2029년 호주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2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OpenAI와 NEXTDC 등도 시드니 AI 캠퍼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호주달러 크레딧과의 연결은 현지 데이터센터 기업의 자금 조달로 확인되고 있다. 장기 고객계약 이후 전력 확보와 건설, 가동 이전의 투자비와 금융비용은 데이터센터 기업이 먼저 부담하게 된다. 즉,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호주 데이터센터 기업의 선행적 자금 수요로 등장하여, 그 일부가 호주달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NEXTDC에서 CDC까지. 호주달러 조달의 확장

NEXTDC는 계약용량 확대 이후 자본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증자, 은행 대출과 함께 장기 하이브리드 채권과 후순위 채권을 활용했다. CDC Data Centres는 호주 국내 데이터센터의 첫 투자등급 채권으로 조달 범위를 넓혔다. CDC Data Centres Australia는 Moody's 기준 Baa2 등급으로 7억 호주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부 채권을 발행했으며, 총 주문액은 44억 호주달러를 넘어서며 발행액의 6배 이상을 기록했다.

상기 사례들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호주달러 조달이 후순위에서 선순위 투자등급으로 확대되었고 충분한 기관 수요 역시 확인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자금 수요가 실제 공모 크레딧 공급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장한 호주달러 크레딧 시장. 하이퍼스케일러 직접 조달로 확장

호주달러 크레딧 시장 자체의 외연도 커지는 흐름이다. 올해 호주달러 크레딧 발행액은 1,570억 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발행 종목 수도 18% 늘었다. 해외 발행사가 전체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홍콩 MTR과 스페인 CaixaBank 등 신규 해외 발행사 진입도 이어지면서 시장의 발행 기반과 투자자 저변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



Analyst 하형민 hyeonminha@hanafn.com

동시에 올해 들어 하이퍼스케일러의 자금 조달처 다변화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4개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채권 발행액은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조달되었던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회사채 미발행). 이 가운데 비달러 채권 비중 역시 전체 조달의 약 28%까지 확대됐다. 대규모 AI 투자에 따른 필요 조달 규모가 커지면서, 반복 발행에 따른 기존 시장의 공급 부담과 투자자 기반 확대 필요성이 복수 통화 조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흐름은 호주달러 시장으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 알파벳이 첫 호주달러 캔거루본드 발행을 위한 맨데이트를 공표했으며, 시장에서는 약 40~50억 호주달러 규모로 다중 만기 트랜치 북빌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규모로 달러가 성사될 경우 호주 역대 최대 수준의 기업 회사채 발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알파벳의 호주달러 시장 진입은 저비용 조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알파벳은 올해 미국 달러를 비롯해 유로, 파운드,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엔화 채권을 발행했으며, 호주달러는 일곱 번째 조달 통화가 된다. 8월 초 달러화 조달에도 충분한 수요가 유입됐고, 최근 달러채의 호주달러 자산스왑(ASW) 환산 레벨을 감안해도 호주달러 조달이 뚜렷한 비용 우위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호주달러 조달은 달러 시장의 수요 부족이나 단순한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 통화와 투자자 기반 다변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AI 산업 관련 호주달러 조달은 NEXTDC와 CDC에 이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로 확장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알파벳의 첫 호주달러 조달은 성장한 현지 투자자 기반이 대형 글로벌 기술기업의 자금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AI 인프라 자금 조달이 호주달러 시장 수급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발행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만큼 실제 발행 규모와 장기물 수요, 그리고 향후 타 하이퍼스케일러의 시장 진입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8일 | Global Fixed Income

해외채권

BOJ의 딜레마

- 일본은 환율과 물가, 재정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놓여 있음
- 다카이치 행정부는 BOJ의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 환율 안정을 피하려는 움직임.
이에 추가 인상 시점 10월에서 9월로 변경
- 통화정책 점진적 정상화와 함께 환율 변동성이 과도해질 때 외환 개입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 10년물 금리 연내 상단 3.0% 전망 유지하나 추가 상승 리스크 유효

환율과 물가, 재정 사이에서의 정책 딜레마

미-일 환율 공조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재차 위협하고 있다[도표 1]. 이는 외환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를 되돌릴 수는 있지만, 미-일 금리차와 일본의 구조적인 자금 흐름 등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엔화 약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환율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 BOJ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국채금리와 정부의 차환비용이 상승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늦추면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지만 엔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일본은 환율과 물가, 재정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엔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BOJ가 금리를 인상해 금리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금리차가 줄어들면 엔화를 저금리로 조달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유인이 낮아지고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GDP 대비 200%를 웃도는 높은 정부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장기간의 초저금리는 이러한 높은 부채 부담을 낮은 이자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핵심 요인이었다. 물론 금리 상승이 정부의 이자비용을 즉각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국채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낮은 금리로 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과 만기도래 국채의 차환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의 평균 조달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시장금리 상승이 신규 발행, 차환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평균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차를 두고 정부의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FY2025 기준 평균 조달금리는 0.9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BOJ의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자비용은 시차를 두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도표 2].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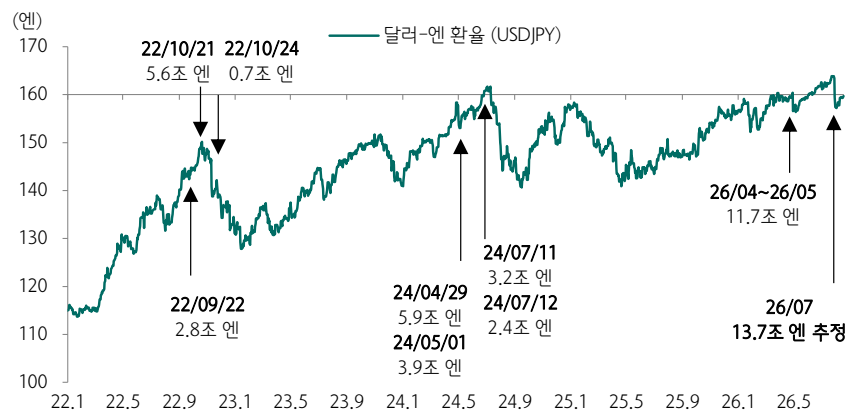
그렇다고 BOJ가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없다. 미-일 금리차가 고착화되면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악화시킨다. 최근 다카이치 행정부 역시 BOJ의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스탠스로 돌아섰는데, 이는 정치권에서도 엔저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통감하고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엔저로 이익을 보는 수출기업들까지 환율 안정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엔화 약세가 수출에 이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일본 기업 특성상 높은 환율 수준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경제적 여건을 종합할 때, BOJ는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매입 축소)라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핵심은 ‘정상화의 속도와 수단’이다. BOJ가 국채 매입을 너무 빠르게 축소할 경우, 시장에서 민간이 흡수해야 하는 국채 물량이 증가하면서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가 커진다. 엔화 방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부의 차환 비용과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게 된다. 이 때문에 BOJ는 정상화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다. 2026년 6월 국채 매입 계획에서도 2027년 3월까지 월간 매입액을 2.1조 엔 수준으로 줄인 뒤, 4월부터 2조 엔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채 시장의 기능 개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매입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 매입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옵션도 열어두었다[도표 3].

도표 3. 엔화 매수 개입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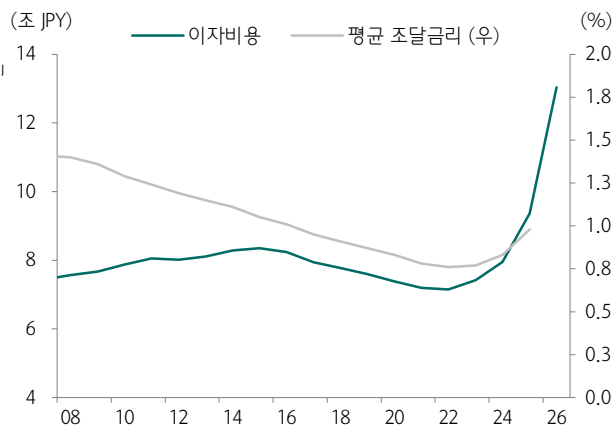
7월 BOJ 전후로 일본 당국은
약 13조 엔 엔화 매수 개입 단행

그럼에도 달러-엔 환율은
160엔에 재차 근접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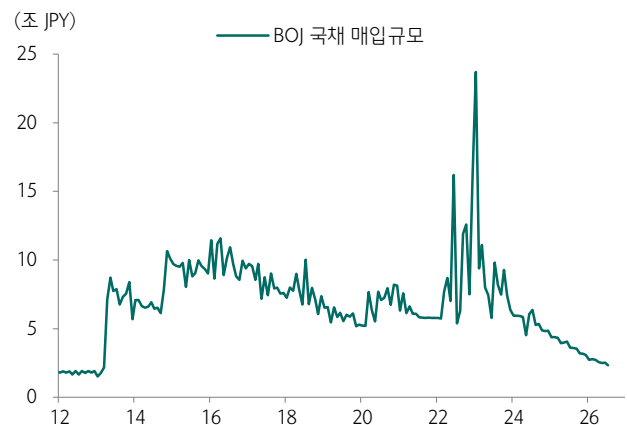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평균 조달금리와 이자비용
: 평균 조달금리 낮지만 금리 상승 이어진다면 이자 부담 커질 것



자료: MOF, 하나증권

도표 5. BOJ의 월간 국채 매입 추이
: 2027년 4월부터 월 2조엔씩 매입할 계획



자료: BOJ, 하나증권

Not Rated

목표주가(12M) **Not Rated**
현재주가(08.19) **8,36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69.83
52주 최고/최저(원)	14,700/5,950
시가총액(십억원)	438.7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52,47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6.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
외국인지분율(%)	6.05
주요주주 지분율(%)	
엠에스오토텍 외 1인	45.4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82	1,765
영업이익(십억원)	117	139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1,534	1,753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515	1,739	1,574	1,619
영업이익	127	208	148	103
세전이익	123	200	169	91
순이익	86	153	129	68
EPS	1,634	2,909	2,460	1,302
증감율	76.1	78.0	(15.4)	(47.1)
PER	8.8	6.5	4.2	6.9
PBR	2.0	1.9	0.8	0.6
EV/EBITDA	5.5	3.9	2.4	2.5
ROE	22.3	28.5	18.5	9.0
BPS	7,315	10,199	13,293	14,406
DPS	0	100	150	1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026년 8월 19일 | 기업분석

명신산업 (009900)**실적은 반등, 밸류에이션은 지배구조에 할인****2Q26 Review: 영업이익률 8.9% 기록**

명신산업의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5%/72% 증가한 4,971억원/441억원 (영업이익률 8.9%, +2.5%p (YoY))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향 매출액(비중 47%)이 브라질 법인의 연결 편입과 베트남 물량의 증가 등에 힘입어 44% (YoY) 증가했고, 글로벌 EV 업체향 매출액(비중 53%)도 고객사 생산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11% (YoY) 증가했다. 미국 법인들 합산 매출액이 7% (YoY) 증가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심원미국의 매출액이 7% (YoY) 감소했지만, 텍사스에 위치한 심원북미의 매출액이 고객사의 생산 증가로 44% (YoY) 증가했다. 중국 법인들 합산 매출액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베트남 물량의 증가 (현대차+빈패스트)가 기여하면서 21% (YoY) 증가했고, 2025년 7월 연결 편입된 명신브라질 매출액이 654억원으로 신규 기여했다. 영업이익률은 2.5%p (YoY), 3.9%p (QoQ) 상승한 8.9%였는데, 외형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었고(상반기 가동률 81.5%로 +4.8%p (YoY)), 전년 동기대비 미국 관세율이 인하된 영향이다.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영업외 외환 손익이 +301억원 (YoY) 개선되면서 세전이익/순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320%/117%/113% (YoY) 증가한 404억원/302억원/295억원을 기록했다.

2026년 매출액/영업이익 14%/31% 증가 예상

명신산업은 매출액의 절반이 현대차/기아, 다른 절반이 글로벌 EV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고객들의 생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대차/기아향 매출액은 2026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생산 증가율이 낮겠지만, 명신산업이 담당하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호조이고, 브라질 법인의 편입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지며(2027년 이후 신차 효과도 기대), 중국에서 생산/수출하는 베트남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EV향 매출액은 최근 2년간 감소했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고객사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2026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형 성장과 함께 관세율 하락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6년 매출액/영업이익은 14%/31% 증가한 1.84조원/1,348억원(영업이익률 7.3%, +1.0%p)으로 전망한다.

P/E Multiple은 낮아 보이지만, 그룹 내 지배구조상 할인 요인이 존재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4배 중반, P/B 0.5배 수준이다. 최근 2년간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2026년에는 3년만에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재의 P/E Multiple은 언뜻 낮아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인 엠에스오토텍(명신산업의 지분 45.4% 보유)의 명신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EB 발행(2026년 5월, 660억원, 명신산업 주식 483.7만주/9.22% 대상, 교환가액 13,644원, 교환청구기간 2026/6/22~2031/4/22, 조기상환청구권 2028/05/15)으로 그룹 내 지배구조 이슈는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EB가 신주 발행이 아닌 기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이고, 교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크게 높으며, 리픽싱 조항도 없어 당장의 오버행 부담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룹 내 관계사인 (주)명신(엠에스오토텍이 지분 92.9% 보유)의 차입금 부담을 엠에스오토텍이 금전대여 등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명신산업의 지분이 활용되는 구조가 Valuation 할인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2026년 08월 19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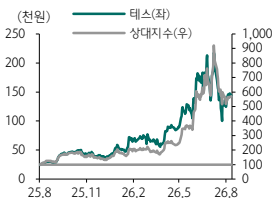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00,000원(상향)
현재주가(8.18) 143,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34.20
52주 최고/최저(원)	217,500/27,850
시가총액(십억원)	2,768.5
시가총액비중(%)	0.60
발행주식수(천주)	19,3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75.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0.7
외국인지분율(%)	6.27
주요주주 지분율(%)	
주승일 외 8인	29.46
국민연금공단	9.9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68.4	606.8
영업이익(십억원)	103.1	144.1
순이익(십억원)	101.5	136.2
EPS(원)	5,258	7,039
BPS(원)	27,094	33,60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40.1	351.1	487.8	578.9
영업이익	38.5	57.8	107.2	130.6
세전이익	49.8	65.8	141.7	168.8
순이익	42.7	56.9	118.1	143.5
EPS	2,158	2,885	6,098	7,410
증감율	2,631.65	33.69	111.37	21.52
PER	7.18	15.44	23.45	19.30
PBR	0.79	1.99	5.02	4.07
EV/EBITDA	5.19	12.19	21.78	17.52
ROE	13.55	15.76	25.70	24.26
BPS	19,594	22,377	28,501	35,132
DPS	600	850	850	850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박규연 gyujeonpark@hanafn.com

테스 (095610)**양호한 실적과 든든한 수주잔고****2Q26 Review: 비용 반영**

테스의 26년 2분기 매출액은 1,237억원(YoY +51%, QoQ +27%), 영업이익은 260억원(YoY +28%, QoQ +17%)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추정치를 9% 상회한 반면 영업이익은 6% 하회했다. SK하이닉스의 M15X 투자 지속으로 인해 견조한 매출액이 달성되었고, 해외 고객사 매출액 111억원이 추정치 상회의 주요인이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DRAM, NAND 모두 전환 투자 역시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화권 고객사의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상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신규 장비 관련 연구개발비 증가로 비용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판매관리비에서 충당금이 확대되었는데, 장비 매출 급증으로 인해 관련 보수 비용 등을 반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수주잔고는 2,069억원으로 전분기 1,455억원에서 증가했다.

2026년 실적 소폭 상향

테스의 2026년 매출액은 4,878억원, 영업이익은 1,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추정치를 각각 6%, 1% 상향한다. 매출액 상향의 이유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중화권 고객사 매출액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외형 성장의 주요 견인차는 고객들의 DRAM 신규 투자 및 전환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규 장비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HBM용 BSD 장비가 신규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온 장비 비중 확대에 의해 제품 믹스 역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실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규 장비 및 고가 장비 확대를 기반으로 Blended ASP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수익성의 추가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과급 등의 비용 증가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으로 추정한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비중확대 기회 포착

테스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000원으로 상향한다. 12개월 선행 EPS에서 2027년 실적 가중치가 확대되었다. 또한 Target PER도 기존 26.7배에서 28.6배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PER이 확장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2026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을 연초 20% 이상에서 최근 분기 35% 이상 증가로 상향했다. 테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해 반도체 장비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균형 잡힌 고객사 비중 및 DRAM, NAND 비중과 더불어 고온 증착 장비 확대, 신규 장비 공급을 통해 꾸준히 평균판매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12개월 선행 PER 23.5배에 불과해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2026년 8월 19일 | 기업분석_Update

Not Rated

현재주가(8.18)

69,9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34.20
52주 최고/최저(원)	172,400/39,400
시가총액(억원)	7,505.5
시가총액비중(%)	0.16
발행주식수(천주)	10,737.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6.7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120.8
외국인지분율(%)	22.74
주요주주 지분율(%)	
성장업 외 5인	22.9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3,963	4,851
영업이익(억원)	389	597
순이익(억원)	431	527
EPS(원)	3,913	4,800
BPS(원)	30,565	35,956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395	3,050	2,578	3,196
영업이익	153	107	(194)	120
세전이익	168	72	(22)	67
순이익	160	55	(30)	75
EPS	1,689	550	(281)	695
증감률	145.9	(67.4)	적전	흑전
PER	39.0	131.8	(133.5)	85.6
PBR	3.4	2.8	1.5	2.2
EV/EBITDA	5.1	2.6	30.8	4.9
ROE	9.0	2.0	(1.1)	2.8
BPS	19,278	25,993	25,642	26,498
DPS	100	100	100	20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인텔리안테크 (189300)**북미 생산 거점 구축과 저궤도/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체질 전환****2Q26 Review: 시장 컨센서스 하회**

인텔리안테크의 2Q26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972.5억원(YoY+30.1%, QoQ+50.2%), 영업이익 71.4억원(YoY 흑자전환, QoQ+304.7%, OPM 7.3%)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시장 컨센서스 하회 요인은 1) 2분기 인식될 일부 물량의 3분기 이연, 2) 판관비 비용 증가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분기 수익성은 시장 기대보다 소폭 밀렸으나, 상반기 확실한 실적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존 정지궤도 기반에서 중/저궤도 위성 안테나 및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사업 체질 변화에 성공하며, 저궤도 안테나 매출 비중은 약 76%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원웹 서비스 확대에 따른 평판형 안테나(YoY+82%) 및 게이트웨이 설치 가속화(YoY+75%)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2분기 약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방산/군용 맨팩(Manpack) 안테나가 전체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 흐름은 지속될 전망

북미 지역 매출은 4Q25에 수주한 Company A사향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Company A사 물량을 비롯하여 AST스페이스모바일향 게이트웨이 잔여 수주 잔고 약 240억원이 차질 없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게이트웨이 단일 품목으로만 약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해상용 안테나 부문도 견조한 흐름을 기록했는데, 하이브리드(정지궤도&저궤도) 안테나 수요 증가로 인해 이머셋(Inmarsat), 마링크(Marlink)향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약 274억원으로, 25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7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북미 공장은 8월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북미 공장은 Company A사향 물량 대응을 넘어, 향후 신규 고객 유치 및 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러-우 및 중동 분쟁 이후 위성 네트워크가 안보 측면에서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도 지역별(북미, 유럽, 중국, 아시아)로 재편되는 추세이다. 이미 글로벌 Top-Tier 고객을 대상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동사의 북미 시장 점유율 역시 중장기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추정치는 소폭 하향 조정

올해 인텔리안테크의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은 약 3,867.5억원(YoY+21.0%), 영업이익 308.4억원(YoY+158.0%, OPM 8.0%)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소폭 하향 조정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소를 일부 반영한 수치이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하향했으나 전체적인 사업 흐름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 사이클상 4분기 계절성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군용/방산 제품 등 고마진 제품의 출하가 증가하며 믹스 개선이 실적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장기 수주 및 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8월 19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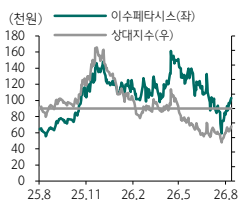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80,000원
현재주가(8.18) 102,9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869.83
52주 최고/최저(원)	161,400/55,300
시가총액(십억원)	7,553.8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73,409.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83.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0.3
외국인지분율(%)	16.45
주요주주 지분율(%)	
이수 외 5인	26.13
국민연금공단	9.9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49.6	2,043.6
영업이익(십억원)	327.2	460.4
순이익(십억원)	264.3	375.0
EPS(원)	3,600	5,109
BPS(원)	13,717	18,699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36.9	1,088.0	1,658.9	2,257.2
영업이익	101.9	204.7	350.3	520.8
세전이익	91.8	201.7	344.8	516.2
순이익	74.0	160.5	270.0	402.6
EPS	1,116	2,257	3,678	5,484
증감율	55.22	102.24	62.96	49.10
PER	23.83	52.81	27.98	18.76
PBR	5.39	11.58	7.44	5.39
EV/EBITDA	15.10	36.93	18.98	12.71
ROE	24.91	29.64	30.48	33.31
BPS	4,938	10,292	13,839	19,093
DPS	143	230	230	23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이수페타시스 (007660)**Capa 확대, 평가 인상과 믹스 개선의 콜라보****2Q26 Review: 고부가 중심 믹스 개선이 견인**

26년 2분기 연결 매출 3,799억원(YoY +57%, QoQ +12%), 영업이익 771억(YoY +83%, QoQ +15%, OPM 20.3%)을 기록했다. 페타시스는 매출 3,082억원(YoY +47%, QoQ +12%), 영업이익 549억원(YoY +73%, QoQ +20%, OPM 17.8%)을 기록했다.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매출이 전분기대비 각각 11%, 5%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수익성 제품인 서버 매출 비중 축소로 수익성이 전분기대비 개선되었다. 후난법인은 867억원(YoY +73%, QoQ +10%), 영업이익 169억원(YoY +140%, QoQ -1%, OPM 19.5%)을 기록했다. 복수 고객사향 AI 서버용 MLB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VIPPO Capa 확대를 통해 외형 확장 및 수익성 개선이 연중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넘치는 수요, 추가 증설 필요성 확대

26년 4분기를 기점으로 주력 고객사의 AI 가속기 및 스위치를 포함해 다수의 다중적층 MLB 양산이 시작되며 가파른 성장이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양산 직전 대량 샘플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율 또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MLB 수급 측면에서는 다중적층 MLB 수요 증가에 따른 Capa Loss 심화로 리드타임이 장기화되며 수주 잔고 또한 전분기대비 7% 증가했다.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고객사 수요는 공급을 여전히 대폭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HDI 생산 전용 7공장 증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내 증설 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페타시스가 HDI 양산이력이 없다는 점이 Peer 그룹 대비 디레이팅 요소로 작용해왔는데 신규 HDI 전용 생산시설 구축은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소외받을 이유가 없다, 목표주가 18만원 유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한다. 호실적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연초대비 주가 수익률은 -14% 수준으로 전기전자 업종 수익률을 대폭 하회중이다. 이는 고객사 내 점유율 축소 및 HDI 기술 경쟁력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다만 스위치 제품 중심으로 멀티램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상회하고 있으며 ASIC 고객사의 HDI 가속기 초도 양산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점진적인 신규 Capa 램프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현대건설 4세대 SMR 수주 기대

건설 Weekly | 2026.8.19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4.9%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GS건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건설주를 매수, 삼성물산은 매도했다. 외인은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매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한 가운데, 건설주는 덜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인 GS건설이 크게 상승했으며,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주식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가도 따라서 상승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4으로 6주 만에 하락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0주 연속 상승(+0.08%), 전세가는 61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76주 연속 상승(+0.14%), 전세가는 77주 연속 상승했다(+0.15%). 서울 매매가는 81주 연속 상승(+0.21%), 전세가는 78주 연속 상승(+0.20%)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각각 보합, 소폭 상승(+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4주 연속, 기타지방 50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5%), 전남광주(+0.04%), 대전(+0.02%), 인천(+0.01%), 부산 보합, 대구(-0.01%)가 하락했다.
-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 민간 부문의 착공 회복이 더뎠고, 일반주택의 공급 위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신속 일반주택의 감소로 청년 및 서민의 주거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인식했다. 이에 아파트 부문은 주택 공급 금융시스템 정상화, 일반주택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택지 2030년까지 8.9만호 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10만호), 본PF 지원 확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완화, 모듈러 공법 확대,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 합리화,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 확대, DSR 소득산정기준 변경, 주택공급 관련 대출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관리, 2026년 가계부채 총량 3% 수준으로 관리 등이 있다.
- 현대건설이 최근 미국 원전 관련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18일 미국 테라파워와 나트륨(Natrium)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최초호기(Kemmerer Unit 1)의 기존 잠정EPC사를 대체하여 역무를 이관하여 EPC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초도호기는 345mw 1기를 지을 계획으로, 24년 3월에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 26년 3월 건설허가 발급하여 26년 4월에 건설 시작했다. 2027년 원자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2030년 시운전, 2031년 상업운전 목표다. 사업비 약 40억달러로 전망되며, 2027년 중 현대건설은 EPC 계약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초호기 이후 Meta 연계 최대 8호기의 EPC 독점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공동 영업 프로젝트의 EPC 독점권도 가졌다.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가장 시공이 빠를 수 있는 3.5세대 SMR(홀텍)과 4세대 SMR(테라파워) 시공 기회를 모두 확보했으며, 이후 NOAK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높였다.
- 하반기 여전히 가장 유효한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씨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재건(해외EPC), 원전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18	274,500	268,500	-2.1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18	1,558,000	1,440,000	-7.57%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삼성물산 (028260.KS)	8/18	369,000	369,000	0.00%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기아 (000270.KS)	8/18	141,700	137,200	-3.18%	- 하반기 미국 HEV 생산 확대와 신차 투입에 따른 판매 믹스 개선 기대 - 원재료 가격 안정과 우호적 환율, HEV 중심의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한 실적 기대
삼성SDI (006400.KS)	8/18	516,000	488,000	-5.43%	- EV 배터리 합작사 리스크가 해소되고 ESS 생산기지로의 전환 여력 확대 - 북미 ESS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7년까지 약 30GWh 수준의 ESS CAPA 확보 예상
LG (003550.KS)	8/18	120,000	112,700	-6.08%	- 주요 전자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며 지주사 NAV와 이익 체력 개선 기대 - 엔비디아와의 AI·로봇·데이터센터 협력 확대 가능성이 중장기 지주사 할인을 축소 요인
S-Oil (010950.KS)	8/18	147,600	153,600	4.07%	-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3Q26 영업이익 1.08조원 예상 -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농심 (004370.KS)	8/18	437,500	420,000	-4.00%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로보티즈 (108490.KQ)	8/18	280,000	279,000	-0.36%	-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라 핵심 부품인 DYNAMIXEL 액추에이터 수요가 급증 - 액추에이터 CAPA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선점 가능성 부각
제닉 (123330.KQ)	8/18	27,300	28,500	4.40%	- 글로벌 하이드로겔 마스크 수요 급증과 미국 오프라인·유럽 시장 확대로 고성장 지속 - PDRN 하이드로겔 수출 안정화와 생산라인 증설로 수익성 개선 본격화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03%	-0.48%p	+73.48%	+11.9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NAVER (035420.KS)	8/18	228,000	217,000	-4.82%	- AI 브리핑·AI 탭 고도화와 커머스·Npay Connect 확대로 B2C 경쟁력 강화 기대 -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부터 B2B 매출 본격화
키움증권 (039490.KS)	8/18	300,500	283,500	-5.66%	- 브로커리지와 ETF LP·PI 트레이딩 호조로 2Q26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33% 상회 - 국내 거래대금 둔화에도 높은 해외주식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유지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46,000	4.47%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488,000	6.3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040	0.00%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68,500	2.2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40,000	26.09%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2,200	1.69%	- 북미·유럽과 코스알엑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종산 (103140.KS)	8/3	71,200	80,400	12.92%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31,500	8.32%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8,500	-8.62%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334,000	19.21%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53%	-0.36%p	+40.69%	-20.8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620	-3.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250	-19.2%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9,745	34.5%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100,500	-6.0%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65	-7.2%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1,690	1.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350	-0.4%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1,695	-6.5%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92.69	10.7%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9.32	1.0%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100.39	9.3%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6.50	14.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84.83	72.5%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4.80	-32.1%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8.90	6.3%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59.39	4.9%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일본 2분기 GDP (1.1%, 이전치 1.9%) - 일본 6월 광공업생산 (4.9%, 이전치 4.2%) - 중국 7월 소매판매 (0.6%, 이전치 1.0%) - 중국 7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5.3%) - 중국 7월 고정자산 (-6.7%, 이전치 -5.7%) - 미국 8월 NAHB 지수 (35, 이전치 34)	- 유로존 8월 ZEW 서베이 (30, 이전치 26.3) - 미국 7월 주택착공건수 (-5.9%, 이전치 19.0%) - 미국 7월 건축허가 (0.6%, 이전치 -2.6%) - 미국 7월 설비가동률 (76.3%, 이전치 76.1%) - 미국 7월 광공업생산 (0.3%, 이전치 0.1%)	- 일본 6월 핵심기계수주 (E 7.2%, 이전치 -12.4%) - 유로존 7월 CPI (E 2.9%, 이전치 2.9%)	중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3.0%)	- 한국 7월 PPI (E --, 이전치 8.6%) - 일본 7월 CPI (E 1.9%, 이전치 1.6%) - 일본 8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4.5) - 일본 8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1.2) - 유로존 8월 제조업PMI (E 51.8,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서비스업PMI (E 51.5, 이전치 51.7) - 미국 8월 제조업PMI (E 53.9, 이전치 53.9) - 미국 8월 서비스업PMI (E 54.0, 이전치 54.6)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 지수 (E --,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E --,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90.8)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2%,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6%,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2%)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6.3)	- 일본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